

“2년전 AI 악몽 또...” 불안

전남 닭·오리 농가 “당시 진 빛도 못갠았는데...”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 비교

발생 시기	-2003년 10월~2004년 3월 -전국 10개 시·군에서 19건	-2006년 11월~2007년 3월 -전국 5개 시·군에서 7건	-2008년 4월 -전북 김제·정읍 양계장 등
방역 조치	392개 농장 528만 마리 폐기	460개 농장 280만 마리 폐기	전남에서만 오리 3만 마리 매몰 고병원성일 경우 닭·오리 6만 마리 살처분 예정
보상액	1,531억원	582억원	48억원



사료값마저 폭등 근심 겹쳐

“2년 전 조류인플루엔자(AI) 때문에 겪었던 악몽이 다시 떠오르는 것 같아 두렵습니다. 만약 고병원성으로 밝혀지면 아예 농장을 떠려 치우든지 해야지요.”

지난 5일 AI가 발생한 전북 정읍시 오리농장의 오리 6천500마리가 나주의 한 오리도축장으로 반출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남지역 오리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더구나 이 농장의 오리 반출에 사용된 차량 5대가 전남지역 11곳의 오리 농가를 다녀간 것으로 드러나면서 AI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다.

또 정읍농장에 오리를 공급한 경기도 여주 농장이 전남지역 25개 농가에 오리를 직접 공급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파는 더욱 커지고 있다. 여기에 최근 1년사이 사료값이 80% 이상 오르면서 양계농가의 시름을 더욱 깊게 하고 있다.

지난 2003년 AI로 인해 1만여 마리의 오리를 살처분한 경험이 있는 김미자(여·50·나주시 금천면 광암리)씨는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AI가 고병원성으로 밝혀지면 오리 농장은 정말 끝장이다. 5년전에도 AI로 인해 오리를 모두 죽이고 1년 동안 농장을 운영하지 못해 진 빛을 지금까지 갠다고 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영암군 금정면에서 오리 2만여 마리를 키우고 있는 박금수(44)씨는 “방제작업이나 위생에 아무리 신경 써도 타 지역에서 AI가 발생하면 소비자들이 도대체 사먹질 않기 때문에 헛수고”라며 “사료값만 지난해보다 300만원이 더 더가고 왕겨나 기름값 등 모든 자재값이 올라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앞진 데 뒷진 격이다”고 말했다.

나주시 봉황면에서 양계 농장을 운영 중인 김도(54)씨는 “1년여 사이에

사료값이 80% 이상 올라 가뜩이나 형편이 어렵다”며 “양계장 운영을 위한 자금만이라도 하루빨리 정부가 지원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읍 오리농장의 오리 6천500마리를 반입받은 나주의 오리 가공업체 H사에도 비상이 걸렸다. 일단 6일 오후 정읍에서 온 오리 전부를 매몰 처리했지만 AI 공포의 재연을 우려하며 긴장의 끈을 늦추지 않고 있다. AI 발생 소식에 따라 휴일인 6일 이 회사 관리자 등 직원 100여명은 대부분 비상 출근, 사태추이를 지켜봤다.

이 회사 관계자는 “AI 발생지역의 가금류는 폐기 처분 되기 때문에 시중 유통은 있을 수 없는 데다 AI에 대한 소비자 인식도 많이 변한 것 같아 크게 걱정하지는 않지만 사태가 장기화되면 정말 큰 일이다”고 말했다.

한편 AI 비상경계령이 내려진 가운데 전남도는 6일 796개 공동방제단과 57대의 소독 방제차량을 총 동원해 닭, 오리농장을 대상으로 집중 소독을 하고 있다. 또 전북과 인접한 담양, 곡성, 구례, 영광, 장성 등 5개 군지역에 방역초소를 운영해 긴급 방역작업에 나서는 등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광필기자 kps@kwangju.co.kr



전남도 방역팀이 6일 나주시 산포면의 한 오리농장에서 AI 감염 여부를 밝히기 위해 오리에서 채혈을 하고 있다. 이 농가는 AI가 발생한 전북 정읍농장에서 오리를 공급한 경기도 여주 오리농장에서 오리를 제공받아 온 것으로 확인됐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금품 살포’ 선거운동원 조사

해남·완도·진도 선거구에서 4·9 총선에 출마한 통합민주당 민화식 후보측의 금품살포 사건을 수사중인 해남경찰은 6일 “민 후보측 선거 조직원 A씨를 불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민 후보측 진도지역 선거 조직원인 A씨는 지난 1월 통합

민주당의 총선 공천을 앞두고 진도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씨는 금품살포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A씨의 금품 살포 여부를 집중 추궁하는 한편, 당시 진도에서 민 후보측 선거 운동의 총괄 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진 B씨를 추적중이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

겨울 전염병 AI 4월에 왜?

겨울철(11월~2월)에 발생하는 조류인플루엔자(AI)가 봄철인 4월에 발생한 원인을 놓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역학조사에 나섰다.

검역원은 우선 2월이면 북쪽으로 떠나는 쇠오리·청둥오리 등 철새들이 농장 주변에 아직까지 남아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지쿠 온난화로 러시아에 추위가 오는 시기가 늦어지면서 철새들이 우리나라로 들고나는 시기가 예년보다 늦어지고 있다는 것.

철새의 AI 바이러스 잠복기간이 21일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로 날아올 때부터 보고하고 있던 바이러스를 뒤늦게 전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또 (고)병원성 AI 발생지역인 태국·베트남·중국 등을 다녀온 여행객이나 현지에서 살다 온 외국인 노동자 등에 의해 퍼졌을 가능성도 높다.

열악한 사육환경으로 닭의 면

- ① 지쿠 온난화로 철새 이동시기 늦어져
- ② 동남아 근로자에 의해 퍼졌을 가능성
- ③ 열악한 사육 환경·닭 면역력 떨어져

역력이 떨어진 것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전북 김제의 경우 AI 발생 후 7동 중 환기가 안된 축사에서만 오리가 집단폐사했다.

지난 2003년과 2006년 큰 피해를 입은 전남도는 올 겨울 AI가 발생하지 않고 지나가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전남지역은 지난 2003년 12월 나주 등지에서 AI가 발병, 오리와 닭 25만마리를 살처분한 데 이어, 2006~2007년 겨울에도 순천·보성·고흥 등 5개 지역 농가의 오리 7만8천마리를 매몰했다. 그러나 두차례 모두 겨울철에 발생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봄철에 AI가 발생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정확한 원인은 검역원의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 5·18’ ‘제주 4·3’ ‘여순 항쟁’

‘현대사 3대 비극’ 만난다

오월어머니회,피해자 가족 초청

한국현대사의 비극인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제주 4·3사건’ ‘여순(여수·순천) 항쟁’의 피해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현대사의 가장 비극적인 3대 사건 피해자 가족들이 한 데 모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18 민주항쟁’ 피해자 가족 어머니들의 모임인 (사)오월어머니회는 오는 12일 제주 4·3 사건과 여순항쟁 피해자 가족들을 광주로 초청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광주 방문에는 4·3사건과 여순항쟁 피해자 가족 60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다.

이를 피해자 가족들은 구(舊) 도청 5·18 유적지를 둘러본 뒤 5·18 기념재단에서 열리는 ‘한국전쟁 전후 민사에 참여한다. 또 5·18 국립묘지와 자유공원 등도 방문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행사를 계기로 앞으로도 이들 피해자 가족들과 정기적인 모임을 갖기로 했다.

오월어머니회 안성례 회장은 “초청자 모두 역사의 아픔을 겪은 무고한 희생자들이다. 서로 위로하고 아픔을 함께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5·18 민주항쟁 28주년을 앞두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5·18 슬로건 공모

‘5·18 민주항쟁’ 제28주년 기념행사위원회는 5·18 정신을 계승하고 자발적인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슬로건 공모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국내 거주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공동 출품도 가능하다. 기간은 오는 12일까지다. 접수 방법은 5·18 행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다운받은 뒤 이메일(g518-28@hanmail.net)로 보내면 된다. 문의는 062-224-0519.

/*이종행 기자 golee@

나원침 (7476) 김종두



다 좋은 건데...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자택 및 상점안경

▶ 서울본사 : 02) 3445-0943
▶ 나주공점 : 061) 337-0571

아한 소리(?) 몰래 엿들으려다...

상나팔

○원룸 출입문의 유리 투입구를 통해 문을 열고 들어가려던 한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 집 주인의 신고로 경찰서행.

○광주북부경찰은 6일 남의 집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려 한 김도(27)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새벽 2시20분께 광주시 북구 A(27)씨의 원룸 출입문을 잡아 당기고 유리 투입구로 손을 넣어 잠금장치를 푼 뒤 몰래 들어가고 했으나 ‘딸깍’ 하는 소리를 듣고 집에서 갠 A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여자친구와 싸운 뒤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넘어 커튼이 원룸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 갔는데, 경찰에서 “이들이 집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엿들으려고 했었다”고 진술.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오월어머니회 전국 민화식선거원

해남·완도·진도 선거구에서 4·9 총선에 출마한 통합민주당 민화식 후보측의 금품살포 사건을 수사중인 해남경찰은 6일 “민 후보측 선거 조직원 A씨를 불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민 후보측 진도지역 선거 조직원인 A씨는 지난 1월 통합민주당의 총선 공천을 앞두고 진도에서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씨는 금품살포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A씨의 금품 살포 여부를 집중 추궁하는 한편, 당시 진도에서 민 후보측 선거 운동의 총괄 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진 B씨를 추적중이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

www.kcc21.com

이제는... 시제·제사상을 차려드립니다

www.kcc21.com

문의전화: 061-383-8283 직접배송